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광기 연구

- 주이상스와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

박한라*

|| 차례 ||

- I. 서론
- II. 금기의 위반과 주이상스
- III. 충위의 해체와 트라우마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광기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기의 위반과 주이상스’에서는 금기를 넘어서려는 화자와 금기를 넘어서지 못한 화자와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짐승’으로 전이되는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금기를 넘어서지 못한 화자는 인간에서 ‘짐승’이 되는 환상적 주체를 통해 주이상스로 진입한다. ‘충위의 해체와 트라우마’에서는 충위의 해체를 유발하는 트라우마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외상 경험으로 인해 상징막이 찢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자아가 현실과 환상의 사이에서 교란 상태를 겪는 트라우마적 상황은 『화사집』에서 ‘문둥이’가 ‘우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충위가 해체되는 지점은 화자 속에 억압된 타자와의 공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존에 의한 광기는 오히려 상처를 통해 상처를 알아가고 회복하는 역설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로 인한 광기는 오히려 화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주제어: 서정주, 『화사집』, 광기, 금기, 주이상스, 충위의 해체, 트라우마

*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I. 서론

본고는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광기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정주는 60년에 걸쳐 천여 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전통,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세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그의 첫 시집인 『화사집』에는 성적 충동이나 현실에 대한 탈주, 충위의 혼란 등 이성 범위를 초과한 광기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문제와 해석을 낳았다. 본고는 이러한 광기를 이성 범위에 해당하는 ‘금기를 위반’하여 주이상스에 이르는 경우와 ‘충위의 해체’를 유발하는 트라우마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광기의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는 작업은 서정주 첫 시집의 예술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척도를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정주 시에 대한 전반적 연구로는 시적 변모 양상, 비교문학적 연구, 정신분석학적 연구, 구조주의적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다루어졌다. 그 중에 『화사집』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대류해보면 구조¹⁾, 생명 탐구로 대표되는 주제론적 논의²⁾, 정신분석적 접근³⁾, 특정 작품 연구⁴⁾ 등으로

-
- 1) 김옥순, 「서정주 시에 나타난 우주적 신비체험: 화사집과 질마재 신화의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제12집,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92, pp.229-263.
 신중호, 「서정주의 『화사집』 연구」, 『송실어문』제10집, 송실어문학회, 1993, pp.533-551.
 유성호, 「서정주 『화사집』의 구성 원리와 구조 연구」, 『한국문학논총』제22집, 한국문학회, 1998, pp.389-411.
 이희중, 「『화사집』의 다중진술 연구」, 『한국언어문학』제50집, 한국언어학회, 2003, pp.421-444.
 강연호, 「『화사집』의 시집 구조와 특성 연구」, 『영주어문학회지』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pp.209-236.
 권혁웅, 「서정주 초기시의 리듬 연구 : 『화사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제39집, 상허학회, 2013, pp.177-205.
- 2) 김화영, 『미당 서정주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송옥, 「서정주론」,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졌지만 ‘광기’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전무하다. 본고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을 수용하면서 『화사집』에 나타난 ‘광기’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기는 이성 범위를 초과한 결과로서 의식 층위를 뛰어넘은 결과다. 『화사집』에서는 의식 층위에서 형성된 ‘금기’ 너머로 도약하는 광기가 등장한다. 이와 달리 ‘금기’를 지키는 의식 층위와 ‘금기 너머로 도약’하는 무의식 층위 간의 상충 관계로 인한 광기도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라캉이 언급한 ‘주이상스’와 연관되며 후자는 ‘트라우마’를 낳는다.

주이상스는 상징계를 넘어서는 전복적인 충동이다. 즉 이것은 “상징계가 부과한 법을 넘어서 영원히 잃어버린 대상인 물(Ding)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⁵⁾이며 “죽음충동을 통해 상징계 한계 너머로 도약”⁶⁾하는 것이다. 이때 ‘죽음’은 신체적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 죽음(Symbolic death)을 의미한다. 주이상스에 의한 상징적 죽음은 “실재를 영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천이두, 「지옥과 열반」,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3) 이남호, 「예술가의 자아 인식 : 『화사집』 시절의 미당」, 『한국시학연구』제28집, 한국시학회, 2010, pp.155-173.

이찬,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생명의 이미지 계열들 -탈주, 에로스, 샴니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제17집, 한국근대문학회, 2016, pp.265-307.

4) 박호영, 「서정주의 「자화상」에 대한 재론」, 『한국문예비평연구』제40집, 창조문학사, 2013, pp.85-107.

박노균, 「서정주의 「자화상」론」, 『개신어문연구』제39집, 개신어문학회, 2014, pp.149-168.

윤재웅, 「서정주의 「도화도화」 자세히 읽기」, 『한국문학연구』제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pp.305-342.

5) 김석, 『에크리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244쪽.

6)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제77집, 새한철학회, 2014, p.126, pp.125-139.

수 있”7)다. 『화사집』에서는 금기를 넘어선 환상적 주체가 ‘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고는 『화사집』에 나타난 화자가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겪는 환상적 주체의 특징을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트라우마는 “‘처리되지 않은’ ‘비상징적’ 경험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결코 경험된 적이 없는 경험, 역사적 기억의 질서 속에 적당한 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경험의 수수께끼”8)다. 따라서 상징질서에 환원될 수 없으므로 ‘반복 강박’이 동반되며 이러한 “반복의 시간성은 무엇보다도 그 사건의 상징화의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9) 『화사집』에서는 반복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기의 위반’과 ‘금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가 상징화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는 상징 구조가 파열된 현상인 트라우마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서정주 시에 대한 트라우마 연구로는 『화사집』에 실리지 않았지만 『화사집』 발간 이전에 발표된 10여 편 중 하나인 「밤이 깊으면」을 중심으로 다룬 논문10)있다. 이 연구는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밤이 깊으면」은 『화사집』 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다.

‘금기의 위반과 주이상스’에서는 화자가 금기를 위반하는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주이상스가 작품에서 어떠한 시어와 양상을 통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증위의 해체와 트라우마’에서는 트라우마로 인한 증위의 해체가 어떻게 형상화되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두 양상 모두 언어로 상정할 수 없는 실재 영역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7) 위의 논고, p.131.

8) 박찬부, 「기억과 서사 : 트라우마의 정치학」, 『영미어문학』제95집, 한국영미어문학회, 2010, p.107, pp.101-134.

9) 위의 논고, 같은 쪽.

10) 오준, 「『화사집』 분석을 통해 본 서정주 시의 이원성 : 은유와 은폐」, 중앙대학교 박사 논문, 2008, pp.1-228.

의식 층위의 이성으로 가려진 광기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II. 금기의 위반과 주이상스

대부분의 논자들이 공감하고 있듯이 『화사집』은 기존의 것이나 “일상적 현실에 대해 탈주의 이미지들을 통해, 서정주 제 자신의 자기보존 충동인 그 생명력의 발산을 강렬하고 절박하게 표현”¹¹⁾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화사집』에 등장한 화자가 기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화자가 도피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을 근원으로 하며 도피한 후 화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화자의 도피는 기존 현실의 전반적 질서를 담당하는 ‘금지’를 위반하면서 발생한다.

금기의 위반을 이해하기 위해 금기를 넘어서지 못한 작품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따서 먹으면 지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 새이 길이 있어

햇슈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렁이 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달아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끓는 대낮에

11) 이찬, 앞의 논고, 272~273쪽.

우리 돌이는 원뿔이 달어……

「대낮」 전문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자꾸 달아나고
울타리는 마구 자빠트려 놓고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사랑 사랑의 석류꽃 낭기 낭기
하누바람이랑 별이 모다 우습네요
푹푹한 산노루 떼 언덕마당 한 마리씩
개구리는 개구리와 머구리는 머구리와

굽은 강물은 서천西天으로 흘러나려……

땅에 긴긴 입맞춤은 오오 몸서리친,
쑥니풀 질근질근 이빨이 허허영계
짐승스런 웃음은 달더라 달더라 웃음같이 달더라

「입맞춤」 전문

보지 마라 너 눈물 어린 눈으로는……
소란한 흥소哄笑의 정오 천심天心에
다불은 내 입설의 피문은 입맞춤과
무한 욕망의 그윽한 이 전율을……

아 - 어찌 참을 것이냐!
슬픈 이는 모다 파촉巴蜀으로 갔어도,
왕왕그리는 불벌의 떼를
꿀과 함께 나는 가슴으로 먹었노라.

(중략)

물약沒藥 사향麝香의 훈훈한 이 꽃자리
내 숫사슴의 춤추며 뛰어가자

웃음 웃는 짐승, 짐승 속으로.

「정오의 언덕에서」 부분

「대낮」에서 화자와 “나를 부르”는 “님”은 서로를 좇으며 “붉은 꽃밭 새이”에 난 길을 달린다. 이때 “붉은 꽃밭”은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독성이 있는 꽃밭이다. 화자는 독성이 있는 붉은 꽃의 “강한 향기”로 인해 “코피”를 흘리면서 “님”을 좇는다. “밤처럼 고평한” “대낮에” 화자와 “님”은 “원뿔이 달어”있다. 이 상황은 화자와 “님”이 아직 죽음과 성의 금기를 어기기 직전이다. 따라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피”나 독성이 있는 “붉은 꽃”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소재로 인해 화자가 결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 시에서 화자와 “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초월해버리는 것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려는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캉이 언급하는 죽음충동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기표적 죽음이다. 프로이트는 죽음본능이 영원한 안정을 성취하려는 쾌락원칙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라캉은 “주체가 기표를 통해 실재를 살해하려는 반복적인 시도”¹²⁾를 하는 것을 죽음충동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주체는 상징계 한계 너머로 도약하려 하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즉 라캉의 죽음충동은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이다. 「대낮」에서 나타나는 ‘죽음’ 이미지 또한 생물학적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닌 ‘금기’라는 상징계 한계 너머를 향유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영원한 삶을 향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주체가 이러한 충동의 만족 상태인

12) 남경아, 「라캉의 죽음충동과 주체의 자유」, 『범한철학』 제73집, 범한철학회, 2014, p.96.

주이상스에 도달했을 때는 ‘환상적 주체’로서 새로운 세계와 만난다. 그러나 「대낮」에서 화자는 주이상스를 향해 나아가려는 충동의 과정이 관찰될 뿐 무제한적 형태의 주이상스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입맞춤」에서는 주이상스로 진입한 환상적 주체가 등장한다. “가시내”와 “화자”는 서로를 쫓으며 결국 “몸서리”가 나는 “입맞춤”을 한다. 앞의 시 「대낮」에서 “화자”와 “님”이 서로를 쫓기만 했다면 「입맞춤」에서는 합법적인 남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낯선 남녀가 상징계적 한계를 넘어선다. 즉 ‘성에 대한 금기’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위반은 “상징계가 선사했던 실제의 소외를 잃어버렸던 쾌의 감정으로 전환하여 다시 주체에게 되돌려준다.”¹³⁾ 화자는 성에 대한 금기를 감내하며 소외됐던 실재를 쾌로 돌려받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화자가 “짐승”이 된다는 것이다. “썩니풀”을 “질근질근” 씹는 “이빨”과 “짐승스런 웃음”은 이러한 인간의 짐승화를 잘 보여준다. 금기를 넘어선 화자는 이제 환상적 주체로서 “짐승”으로 등장한다. “짐승”이 인간과 다른 점은 ‘상징계적 질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상징계를 뛰어넘어 실제계로 탈주한 화자는 “짐승”이 되어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정오의 언덕에서」도 화자가 주이상스로 진입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화자는 “너”의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무한 욕망”을 느낀다. 화자의 “피문은 입맞춤”은 금기를 어기고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죽음충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징적 죽음으로 향한 화자는 “어찌 참을 것이냐!”는 영탄과 함께 결국 “윙윙그리는 불벌의 떼를/꿀과 함께” 먹으며 죽음을 넘어서 “웃음 웃는 짐승”이 된다. 마찬가지로 화자는

13)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제77집, 새한철학회, 2014, p.131.

‘인간’에서 “짐승”이라는 환상적 주체가 되어 “웃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기의 위반과 인간의 짐승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기를 위반하기 직전에는 짐승의 모습으로 자유로워진 환상적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화사집』에 등장한 화자는 금기로 인한 욕망에서 멈추지 않는다. 만약 화자가 욕망에 기울었다면 기표의 환유와 같은 연쇄 작용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며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움직이는 욕망과 반대로 주이상스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이다.”¹⁴⁾ “욕망은 상징계 속에서 언어의 한계를 죽음 충동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주이상스로 발전해간다.”¹⁵⁾ 금기 너머의 공간을 기표의 은유와 환유를 통해 환상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서 금기 너머로 진입하는 화자는 실재계의 주체가 된다. 화자가 ‘웃는 짐승’이 되는 이미지는 광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환상적 주체의 자유로움을 잘 드러낸다.

금기를 위반하는 양상은 남녀 간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다음 시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금기의 위반’을 살펴보기 위해 ‘정체성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작품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 우에 무수한 밤이 왕래하나
 길은 항시 어테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 데도 없다.

(중략)

아 스스로히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런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바다의 깊이 우에
 네 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청년아.

14) 손 호머, 김서영 옮김,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p.142.

15) 김석, 앞의 책, p.188.

애비를 잊어버려
에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무를 잊어버려,
마지막 네 계집을 잊어버려,

아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침몰하라. 침몰하라. 침몰하라!

「바다」 부분

(전략)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티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우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트린
병든 숫개마냥 헐떡어리며 나는 왔다.

「자화상」 부분

「바다」에서 화자는 “바다” 앞에서 드넓은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과 불가
능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는 “길은 항시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

도 없다”는 언술에서 읽어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바다” 앞에서 “푸르른 정열”에 자신의 욕망을 맡긴다. “바다”를 건너는 방법은 “애비를 잊어버”리고, “에미를 잊어버”리고 “형제와 친척과 동무를 잊어버”리고 “계집”까지 잊어버려야 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상징적 관계를 모두 버리고 나서야 “바다”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화자가 도착하고 싶은 곳은 “아라스카”, “아라비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기표로 환유되며 등장한다. 즉 이러한 환유 구조는 욕망을 채우려는 기표의 미끄러짐이 잘 드러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침몰”하라는 죽음충동으로 이어진다. 이때의 “침몰”은 생물학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화자는 기존의 것을 잊어버리려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할 뿐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 즉 화자는 여전히 금기 안에서 금기 너머의 것을 욕망하는 상징계적 주체의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이다.

「자화상」에서도 위의 시와 유사하게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가 보인다. 화자는 자신이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그 크다란 눈”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라는 언술을 통해 “바람”의 자식이 된 것을 표명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 즉 상징 구조에 의한 가족 관계를 위반한 화자를 보고 “죄인”, “친척”과 같은 기표를 읽어내지만 화자는 뉘우침이 없다. 이미 혈통이라는 금기를 어긴 화자는 환상적 주체가 되어 “숫개”가 된다. “숫개”가 된 화자는 “시의 이슬”만으로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트”린 채 “혈떡어리며” 간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불쾌를 통과한 쾌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자는 “시의 이슬”로 쾌를 느끼지만 동시에 “햇바닥”을 늘어트릴 수밖에 없는 불쾌를 동반한다. 따라서 이는 ‘불쾌를 동반한 쾌’, 혹은 ‘불쾌

에서 전환된 ‘쾌’ 등으로 정의되는 주이상스를 환기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음 시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짐승을 통해 해석한 작품이다.

사향麝香 박하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나

(중략)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사향 방춧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중략)

우리 순네는 스물 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은 입설…… 스며라! 배암.

「화사」 부분

이 시에서 “화사”는 “이브”와 관련이 있다. “이브”는 주지하듯이 신의 금기를 어긴 존재다. 즉 화자에게 “이브”의 후손인 ‘여성’은 금기를 좌초하게 하고 질서의 실효성을 실추시키는 주이상스적 존재인 것이다. 이 시에서는 “순네”라는 기표가 등장하지만 “화사”는 “순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시에서 여성은 “짐승”처럼 금기를 어기고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등장한다. “아름다운 배암”은 여성의 환상적 주체로서 쫓기지만 잡히지 않는 서사적 내용이나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과 같이 죽어갈 듯 살아있는 불쾌를 통과한 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짐승이다.

이처럼 『화사집』에서 화자는 인간에서 ‘짐승’이 되는 환상적 주체를 통해 주이상스로 진입한다. 화자가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짐승이 금

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듯이 상징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실재계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사집』에 나온 ‘짐승’은 불쾌를 통과한 쾌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등장한다.

Ⅲ. 증위의 해체와 트라우마

『화사집』에서는 화자가 증위와 증위 사이의 식별불가능한 지점에서 이성 범위를 초과하는 광기를 관찰할 수 있다. 화자가 이러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원인은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다. 트라우마는 상징 체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외상적 사건에 의한 것으로 “자아의 방어 방패가 뚫려 그것에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의 틈 사이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외부적 자극이 내부로 투입되어 정신계의 대규모의 교란 사태가 벌어”¹⁶⁾지는 현상이다. 『화사집』에서 정신계의 질서가 교란될 만큼의 외상적 사건은 금기의 위반과 관련이 있다. “상징적 재현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보통 사람들은 이 금기 사항을 별로 저항감 없이 그대로 살아간다. 재현 과정에 하나의 ‘규범’으로서 ‘금기의 기표’가 정신계에 입력되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 사건은 이러한 상징적 재현 체계를 뿌리로부터 흔들어 놓는다는 데에 그 반인간적 야만성이 드러난다.”¹⁷⁾ 단 금기를 위반하고 자유로워지는 주이상스의 경우와는 달리 상징체계에 난 구멍을 통해 외상적 실재가 출현하는 트라우마는 혼돈 상태를 다시 상징체계로 묶으려는 정신계의 끈질긴 시도를 동반한다.

다음 시에는 금기의 위반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증상으로서 교란 상태에

16) 박찬부, 「트라우마와 정신분석」, 『비평과이론』 제15집,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p31.

17) 위의 논고, p.35.

해당하는 ‘충위가 해체되는 지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문둥이」 전문

황토 담 너머 돌개울이 타
죄 있을 듯 보리 누른 더위-
날카론 왜냐 시렁 우에 걸어 놓고
오매는 몰래 어디로 갔나

바윗속 산되어야지 식 식 어리며
피 흘리고 간 두럭길 두럭길에
붉은 옷 닦은 문둥이가 울어

땅에 누어서 배암 같은 계집은
땀 흘려 땀 흘려
어지러운 나 리 옆드러었다.

「백하麥夏」 전문

「문둥이」에서는 “보리밭에 달 뜨면/애기 하나 먹”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저지른 “문둥이”가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우는 것으로 보아 “문둥이”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무슨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른 후 고통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기”를 먹는 행위는 상징체계를 찢어버리는 야만의 흔적으로서의 외상적 사건이며 ‘짐승’적인 특징을

지낸다. 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은 “주체의 기존 질서에 통합될 수 없는 (unintegrated) 이질적, 불법적 경험이다.”¹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자가 환상적 주체로서 금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는 ‘웃는 짐승’으로 등장한다. 이와 반대로 “문둥이”는 자신의 짐승적인 행태로 인해 밤새도록 운다. “해와 하늘빛”이 서러운 것도 하늘 보기 부끄러운 죄책감에 의한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대조 지점은 “문둥이”가 금기를 위반한 ‘짐승’과 금기를 지키는 ‘인간’ 사이의 존재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목구비가 지워진 “문둥이”는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의 혼돈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나타낸다.

「맥하麥夏」에서도 이와 같은 “문둥이”가 등장한다. “죄 있을 듯 보리 누른 더위” 속에서 “계집”은 남자를 “엎드리”게 하여 성의 금기를 어기고야 만다. 따라서 “계집”은 “배암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계집”은 계속 짐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이 보인다. 이는 “계집”이 여자의 의상으로 보이는 “붉은 옷 낚은” “문둥이”로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기를 어긴 사건 이후 “산되어야지”가 되어 “식 식 어리며” 사라지는 남자와 “문둥이”가 된 “계집”의 서로 다른 반응에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남자는 사건 이후로 금기를 잊고 짐승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난다. 이와 반대로 “계집”은 “배암”과 같은 ‘짐승’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서 “문둥이”가 되어 우는 것이다. 이처럼 외상 경험으로 인해 상징막이 찢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자아가 현실과 환상의 사이에서 교란 상태를 겪는 트라우마적 상황은 『화사집』에서 “문둥이”가 ‘우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라우마로 인해 “재현 체계의 와해가 위치한 곳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지점

18) 박찬부, 「트라우마와 정신분석」, 『비평과이론』 제15집,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p.35.

인 ‘식역’(識闕, limen), 혹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림보’(limbo)이다.”¹⁹⁾ 따라서 “문둥이”는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의식과 무의식, 즉 현실과 환상이 교란되는 지점에서 타자와의 감각적 열림, 신체적 뒤엉킴이 발생된 결과다.

저놈은 대체 무슨 심술로 한밤중만 되면
 찾아와서는 꿈꿈 앓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나와 나의 안해 될 사람에게도
 분명히 저놈은 무슨 불평을 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의 시를, 그 다음에는 나의 표정을, 흠어진 머리털 한 가닥까지,
 ……낮에도 저놈은 엿보고 있었기에

(중략)

감지 못하는 눈은 하늘로, 부흥……비흥……부흥아 너는
 오래 전부터 내 머릿속 암야暗夜에 둥그란 집을 짓고 살았다.
 「부흥이」 부분

내 너를 찾아왔다 수나嫂娜.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종로
 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새벽닭이 울 때마다 보고 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느냐. 수나, 이게 몇만 시간 만이냐. 그날 꽃상여
 산 넘어서 간 다음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드니, (중략)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 종로 네거리에 뿌우여니 흩어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오는 애들. 그중에도 열아홉 살쯤 스무 살쯤 되는
 애들. 그들의 눈망을 속에, 핏대에, 가슴속에 들어앉아 수나! 수나! 수나!
 너 인제 모두 다 내앞에 오는구나.

「부활」 부분

「부흥이」에서 화자는 “부흥이”를 반복적으로 만난다. “부흥이”의 반복
 양상을 살펴보면 ①한밤중만 되면 꿈꿈 앓는 부흥이 ②나와 안해 될 사람

19) 앞의 논고, p.40.

에게 불평을 품는 부흥이 ③낮에도 나의 일상을 엿보고 있는 부흥이 ④감지 못하는 눈으로 머릿속에 등그란 집을 짓고 사는 부흥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정말 “부흥이”가 화자 앞에 나타나 계속 울고 있으며, 그러한 “부흥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현실 층위의 상황인지 화자가 환상 층위의 “부흥이”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즉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화자의 상징적 체계가 붕괴되자 외상적 실재가 등장함으로써 층위의 경계가 해체된 것이다. 따라서 트라우마는 서사 혹은 기억 속에서 망각된 존재를 불러 모으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화자 속의 억압된 타자가 등장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즉 “부흥이”는 화자의 구멍 뚫린 방어막을 통해 들어온 실재의 귀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과거, 현실-환상의 층위가 해체된 층위, 즉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지점인 반의식적 재현 상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속에서 화자는 ‘반복 강박’에 시달린다. 반복 강박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악몽과 같이 화자가 층위적 교란을 온전한 상징 체계로 회복시키는 상상계적 작업이다. “상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현성 복원에의 노력은 그러나 그 행보가 느리다.”²⁰⁾ 따라서 언어를 통해 재현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상적 실재는 결국 상징계의 정확한 위치로 환원시킬 수 없으므로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부흥이”의 차이를 이루는 반복적 양상은 결국 과거에 발생한 상처와 현재가 교차되고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성질을 동반하므로 선형적 시간과 이성 층위를 해체한 광기의 방식이며 상처를 이해해가기 위한 과정이다.

「부활」에서도 화자는 “꽃상여”를 타고 “산 넘어서 간” “수나”를 반복적으로 만난다. 이러한 현상은 꿈-현실, 과거-현재 층위가 해체된 틈으로 화

20) 앞의 논고, p.36.

자의 무의식적 타자인 “수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는 죽은 “수나”가 현재에 살아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기억의 방식이며 망각된 존재를 생생한 이미지로 소환해 ‘죽음’에 말을 건네는 광기의 방식이다. “수나”를 만나는 반복 양상은 무의지적이고 무의식적인 반복이지만 오히려 상처를 통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인 것이다.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 뜨고, 초록 제비 문혀 오는 하늬 바람
우에 혼령 있는 하늘이여, 피가 잘 돌아…… 아무 병도 없으면 가시내야. 슬픈
일 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

「봄」 전문

흰 무명옷 갈아입고 난 마음
짜늘한 들담에 기대어 서면
사뭇 스스러워지는 생각, 고구려에 사는 듯
아스럼 눈 감었든 내 녀의 시골
별 생각나듯 돌아오는 사투리.

(중략)

여기는 바로 십년 전 옛날
초록 저고리 입었던 금녀, 꽃각시 비너 하야 웃든 삼월의
금녀, 나와 둘이 있던 곳.

머잖아 봄은 다시 오리니
금녀 동생을 나는 얻으리
눈썹이 검은 금녀 동생
얻어선 새로 수대동 살리.

「수대동水帶洞 시」 부분

화자에게 ‘트라우마’는 상처를 통해 자신의 타자와 만나는 방식이다. 따

라서 “아무 병도 없으면”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는 발언은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광기를 의지적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화자에게 “슬픈 일”이란 “봄”처럼 생명을 이어나가는 힘이자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이다.

「수대동水帶洞 시」에서 화자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내 녀의 시골”, “사투리”와 함께 “흰 무명옷”을 입고 보냈던 “금녀”를 떠올린다. 이러한 비자발적 기억을 뒤로 하고 화자는 “머잖어”이 다시 오는 “봄”에 “금녀 동생”을 얻어 “내 녀의 시골”인 “수대동”에 산다는 의지를 밝힌다. 사랑하는 “금녀”를 보내고 “금녀 동생”을 다시 얻어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트라우마의 반복 양상과 유사하다. 이처럼 화자는 의식 층위에서도 트라우마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요컨대 『화사집』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는 층위를 해체함으로써 화자 속의 타자와 공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존을 유발하는 광기는 오히려 상처를 통해 상처를 알아가거나 상처를 회복하는 역설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로 인한 광기는 오히려 화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광기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그의 첫 시집인 『화사집』에는 이성 범위를 초과한 광기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문제와 해석을 낳았다. 본고는 이러한 광기를 이성 범위에 해당하는 ‘금기’를 ‘위반’하여 주이상스에 이르는 경우와 ‘층위의 해체’를 유발하는 트라우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광기의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는 작업은 서정주 첫 시집의 예술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척도를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금기의 위반과 주이상스’에서는 금기를 넘어서려는 화자와 금기를 넘어선 화자와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짐승’으로 전이되는 양상의 특징을 살펴해보았다. 금기를 넘어선 화자는 인간에서 ‘짐승’이 되는 환상적 주체를 통해 주이상스로 진입한다. 화자가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짐승이 금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듯이 상징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실재계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사집』에 나온 ‘짐승’은 불쾌를 통과한 쾌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등장한다.

‘충위의 해체와 트라우마’에서는 충위의 해체를 유발하는 트라우마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외상 경험으로 인해 상징막이 찢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자아가 현실과 환상의 사이에서 교란 상태를 겪는 트라우마적 상황은 『화사집』에서 ‘문둥이’가 ‘우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둥이’는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실재계와 상징계가 교란되는 지점에서 타자와의 감각적 열림, 신체적 뒤영킴이 발생된 결과다. 즉 금기를 어긴 ‘야만의 흔적’으로 인해 ‘짐승’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서 ‘문둥이’가 되어 우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실재계와 상징계가 교란되는 지점은 충위를 해체함으로써 화자 속에 억압된 타자와 공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존을 형성하는 광기는 오히려 상처를 통해 상처를 알아가고 회복하는 역설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로 인한 광기는 오히려 화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금기의 위반을 통한 주이상스는 화자가 상징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양상을 보여주며 충위의 경계를 해체하는 트라우마는 상징계를 통해 묶을 수 없는 것을 상징계로 다시 묶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처와의 만남이다. 그러나 두 양상의 광기 모두 화자를 자유롭게 하거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1』, 은행나무, 2015.

〈평론 및 논문〉

강연호, 「『화사집』의 시집 구조와 특성 연구」, 『영주어문학회지』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pp.209-236.

권혁웅, 「서정주 초기시의 리듬 연구 : 『화사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제39집, 상허학회, 2013, pp.177-205.

김옥순, 「서정주 시에 나타난 우주적 신비체험; 화사집과 질마재 신화의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제12집,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92, pp.229-263.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제77집, 새한철학회, 2014, pp.125-139.

남경아, 「라캉의 죽음충동과 주체의 자유」, 『범한철학』제73집, 범한철학회, 2014, pp.85-105.

박노균, 「서정주의 『자화상』론」, 『개신어문연구』제39집, 개신어문학회, 2014, pp.149-168.

박찬부, 「기억과 서사 : 트라우마의 정치학」, 『영미어문학』제95집, 한국영미어문학회, 2010, pp.101-134.

박찬부, 「트라우마와 정신분석」, 『비평과이론』제15집,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pp.31-58.

박호영, 「서정주의 『자화상』에 대한 재론」, 『한국문예비평연구』제40집, 창조문학사, 2013, pp.85-107.

송옥, 「서정주론」,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신중호, 「서정주의 『화사집』 연구」, 『송실어문』제10집, 송실어문학회, 1993, pp.533-551.

오준, 「『화사집』 분석을 통해 본 서정주 시의 이원성 : 은유와 은폐」, 중앙대학교 박사 논문, 2008, pp.1-228.

유성호, 「서정주 『화사집』의 구성 원리와 구조 연구」, 『한국문학논총』제22집, 한국문학회, 1998, pp.389-411.

- 윤재웅 「서정주의 「도화도화」 자세히 읽기」, 『한국문학연구』제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pp.305-342.
- 이남호, 「예술가의 자아 인식 : 『화사집』 시절의 미당」, 『한국시학연구』제28집, 한국시학회, 2010, pp.155-173.
- 이찬, 「서정주 『화사집』에 나타난 생명의 이미지 계열들 -탈주, 에로스, 샤머니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제17집, 한국근대문학회, 2016, pp.265-307.
- 이희중, 「『화사집』의 다중진술 연구」, 『한국언어문학』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pp.421-444.
- 천이두, 「지옥과 열반」,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저서〉

- 김석, 『에크리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 김화영, 『미당 서정주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 손 호머, 김서영 옮김,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Madness in Seo Jung-ju's 『hwasajib』
- Focusing on Jusangsu and Trauma -

Park, Han-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adness in Seo Jung-ju's 『hwasajib』. In taboo violations and Ju Sang Sangs,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of the speaker to the beast by contrasting the speaker who tried to overcome the taboo and the speaker who exceeded the taboo. The talker who goes beyond the taboo enters Ju Sang's through a fantastic subject who becomes a beast in humans. In Deconstruction and Trauma of Layers,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rauma that causes disintegration of layers. The traumatic situation in which the traumatic experience is torn up and the ego becomes a disturbance between reality and fantasy is closely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the 'mound' as a 'crying' image in The Storybook. In addition, the point where the layer is dismantled forms coexistence with the suppressed batter in the speaker. The madness of such coexistence can be understood as a paradoxical process of recognizing and recovering wounds through wounds. Therefore, the madness caused by trauma is rather the way the speaker lives.

Key Word : Seo Jung-ju, 『hwasajib』, Madness, Taboo, Ju-sangsu, Deconstruction of the Layers, Trauma

박한라

소속 :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hanra0912@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01월 3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